

134340

김한별

오늘도 나는 그대를 돕니다  
그저 이름도 없이 멀리서 그대를 지켜볼 뿐

당신 곁에 있는 이들은 이름이 있지만  
나는 다른 이들처럼 이름이 없네요

내가 조금만 키가 크고  
그대와 좀 더 가까웠다면  
내가 더욱 밝고 빛났더라면  
나에게도 이름이 있었을까요

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 
그저 이름 몇 글자를 원하는 것뿐인데

오늘도 그대를 돕니다  
그저 이름이 명왕성이었던 그대의 작은 별